현불 논단

'虎視牛步'로 신년 맞이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흰소는 '성스러움 · 평화' 상징
禪家에선 소를 불성에 비유해
길들이는과정 '심우도'로 그려

코로나의시대, 세상은 변화 중
세계 종교 단체도 언택트 영향
변화 적응 못하면 결국엔 도태

미래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
'호시우보'의 마음가짐 가져야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은 육십갑자 중 38번째로 '신(申)'은 '흰색'을 의미하고, '축(丑)'은 '소'을 뜻한다. 그래서 올해를 '흰 소(白牛)의 해라고 한다. 흰 소는 평화를 상징하고, 성스럽다 하여 인도에서는 백우(白牛)를 성우(聖牛)라고 한다. 인도를 여행하면 흰 소가 도로 가운데 한가롭게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선가(禪家)에 소를 우리의 마음(불성)에 비유하여 소를 찾아가고, 발견해서 잘 길들여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을 마음을 찾고 닦는 수행에 비유하는 '심우도'가 있다.

〈법화경〉 화택의 비유에는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즉 대백우거(大白牛車)가 일불승(一佛乘)을 상징하여, '삼승(성문 · 연각 · 보살)'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방편설법을 설하고 있다. 〈한비자〉에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는 일화'가 있다.

"어떤 집에서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자, 공자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님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얼마 후에 또 그 집에서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자, 다시 공자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님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아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 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 죽었으나 그들 부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 일화는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길흉과 행복과 불행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칠전팔기로 다시 일어선 자가 승리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사람이 모이면 안되는 비대면 사회, 언택트 문화가 도래하였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종교의식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모든 종교는 엄청난 타격과 위축을 받았다.

코로나는 갑자기 전 세계의 종교집단의 법회와 예배 행위를 중단시켰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 의식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다. 한국불교도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연기하였다. 종교는 모임의 조직(전도)이 세력이고 재정이다. 종교의 생명은 전도이고 교화이다.

〈열반경〉에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실의 변화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수십 년 기업이나 개인이 이룬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항상 현재는 위기이며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삶이나 종교 조직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역병이 세력이 너무 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일이라 당혹감도 크다는 점이다.

불교 교단은 시급히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이번에 일제히 온라인 수업방식을 구축했다. 이웃종교도 우리보다 큰 충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다. 위기나 역경을 잘 극복하면 그 만큼 성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역경을 즐기면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다.

미래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호랑이 눈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행동으로 실천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를 하자. 지혜의 눈은 '호시(虎視)'이고, 실천은 소의 발자국처럼 '혜목행족(慧目行足)'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깨달음은 정견이고 지혜이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우연 같은 호의

"스님, 저 조금 더 살게 부처님께 기도 해주세요. 고비 넘기기 힘들어요. 욕심 많은 중생, 고맙습니다. 스님 성불하세요."

노(老)거사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드렸다. 거사는 반가워하며 방문하겠다는 내게 주소를 불러주셨다가 금방 다시 취소해버리신다.

"저 있는 곳까지 100리길입니다. 제가 살아나서 우리 스님 꼭 찾아뵙고 좋은 법문 잘 받겠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과 불안 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노거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거사와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가 입원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었다. 딸의 요청으로 중환자실에 몇 번 들러 의식 없는 아내를 위해 치유를 발원하며 기도를 하였었다. 아내의 임종 전과 후, 그리고 입관을 도와드리고 49재 막재 때 의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기도했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참 지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까지 거사



그림 · 최주현

는 그저 인사만 건넬 뿐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거사는 불교법당에 종종 오셔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다 가곤 하였다. 아내는 승가사를 다니던 신심 깊은 불자였다고 한다. 아내의 불심에 대해 한동안 추억한 후엔 조용히 자리를 뜨곤 하였다. 워낙 말씀이 없고 고요한 사람이었다.

한번은 거사에게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스님 제가 입원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도 마침 설 무렵이었다.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어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도 병원 복도에서 병원장과 마주쳤다. 병원장은 반가워하며 노거사의 호실을 묻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특별히 부탁 전화까지 넣었다. 노거사는 나의 방문과 병원장님의 호의를 느끼시며 삶의 용기와 의욕을 갖게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퇴원 소식을 접하고 안심했다.

이 글을 쓰고 보니 노거사의 전화의 의미를 알 것도 같다. 시기도 그때와 비슷하고 노거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상황도 비슷하다. 그 당시도 위험한 고비였는데 잘 넘겼듯이 이번의 고비도 잘 넘기고 싶은 거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노인 불자들의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요즘이어서인지 거사의 말과 문자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그때 병원장의 우연한 호의처럼, 그런 우연같은 느낌의 용기와 의욕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해외포교, 종단 의지에 달렸다

해외사찰이 11년 만에 급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2009년 142개였던 사찰은 11년이 지나 82개로 감소했다. 무려 57% 수준이다. 2009년 이후 11개 사찰이 새롭게 창건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수의 사찰이 폐사되거나 조계종과의 연관성이 단절된 셈이다.

모든 사찰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처 연락이 닿지 않은 사찰도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통계 수치로만 그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사찰 현황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2011년 해외포교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했지만, 이후의 감소세는 그 미비한 성과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은 "해외 현실과 법령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해외사찰은 상당수 해당국 가법에 따른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법상 사찰 등록이 쉽지 않거나, 주신도층인 교민사회의 특성상 조계종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사찰 사례는 종법상 예외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 영향력이 점차 미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종단 차원의 관심과 변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법에 따른 사무국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일원화해 구체적인 현황을 토대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숨겨진 성보 가치 개발하자

경기도 안양시의 산속 작은 공원에는 보호각 속에 갇힌 한 성보가 있다. 바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인 안양 석수동 마애종이다.

그동안 우리는 마애불에 대해서는 성보로 여기며 보존 등에 힘썼지만 마애종은 그러한 성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준에 불과했다.

안양 석수동 마애종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발굴과 정비조차 없었다.

마애종은 스님이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안양 석수동 마애종의 경우 고려시대인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무렵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유일의 마애종상으로 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이어지는 범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어떻게 걸리고 타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하지만 높은 가치에도 불교계의 인식은 저조하다. 석수동 일대는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마애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안양시는 이를 고려 할 수밖에 없어 불교계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곁에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성보지만 사실상 방치돼 사라진 것들이 많다. 국보나 보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차이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술포럼 등을 개최한 안양시가 오히려 지정을 준비하는 지금,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마애종이 마애불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불교계가 인식하는 것부터 마애종의 진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운동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